

앞으로도 무재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시스템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20건 이상의 재해가 발행하여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던 회사가 현재는 무재해 3배를 달성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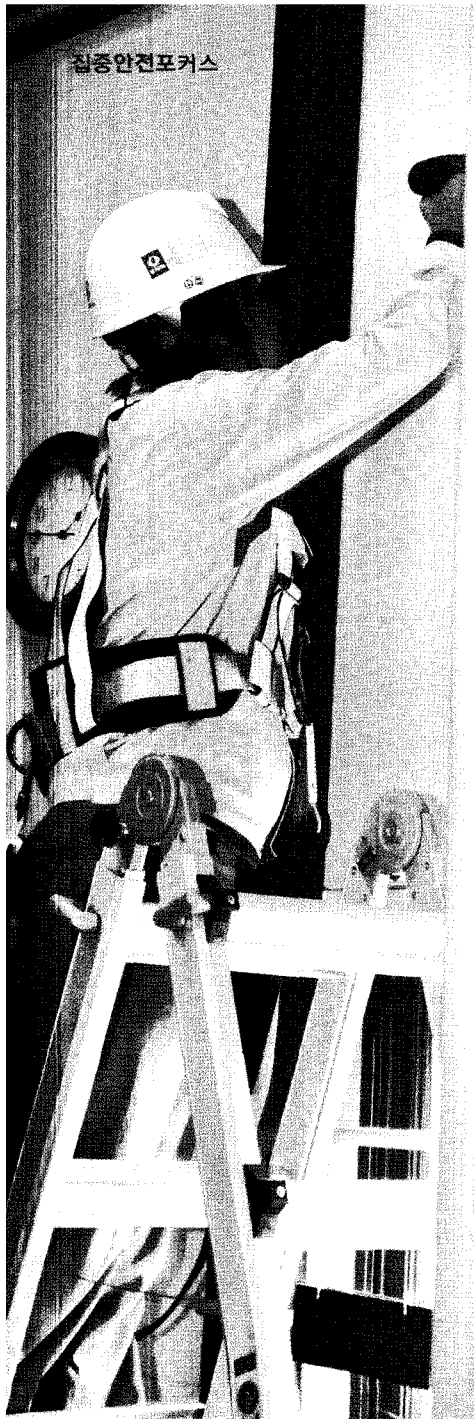
여기에는 '직원들이 다치지만 앓는다면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경영진의 의지와 이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한 목소리로 안전을 이야기하는 동우화인켐(주) 평택공장을 찾아 여러한 도화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동우화인켐(주) 평택공장

취재: 사진 | 임동희 기자(dontree@safety.or.kr)





안전은 기업발전의 밑거름

평택항과 인접한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동우화인켴(주) 평택공장은 LCD용 고순도 약품, 컬러레지스트, 컬러필터, 편광필름, 확산판 등 IT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 현재는 연평균 47%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유망 기업이다.

뿐만이 아니다. 생산성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안전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나간 결과 지금은 무재해 3배수(810만 시간)를 달성한 '안전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지난 2007년까지 연평균 20건 정도의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이 최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안전정책이 펼쳐지고 있을까. 포승공단으로 직접 찾아가봐 이곳의 안전활동을 세세히 살펴봤다.

안전사관학교, 안전체험장 운영

이곳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약 3,000여명이 근무할 만큼 규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화학물질의 사용도 빈번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그동안 이곳에서는 2004년 21건, 2005년 19건, 2006년 17건, 2007년 20건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재다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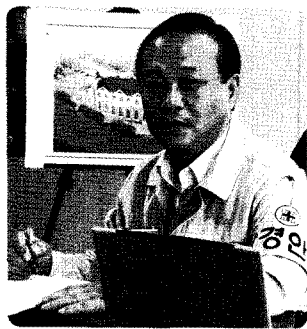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챙기기 시작. 안전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22명)하고, 각종 안전시스템의 개선과 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해나갔다.

우선적으로 교육, 점검, 훈련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며, 안전제한제도, 안전보건 간사 선임(38명), 전담 TF 운영, 안전경찰 등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들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해왔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안전교육 부분이다. 직접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2008년부터 안전사관학교와 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

안전사관학교는 직급에 따라 관리자과정(4일)과 사원과정(3일)으로 나뉘, 소방 및 응급처치 실습, 안전특강, 비상탈출 훈련, 계몽활동, 현장순찰, 분임토의 등의 프로그램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무교대조를 포함하여 단 한명의 열외인원도 없이 참여시키면서 공장장부터 현장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안전체험장에서는 협착위험예지, 전기위험예지,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체험, 사다리



이 만 냉 공장장

안전, 절대 등한시 하지 않을 것

우리 공장의 경영슬로건이 바로 '안전하게 다비빠'입니다. 이는 '안전하게, 다함께, 바르게, 빠르게'라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안전최우선의 공장관리 문화와 협업문화의 정착, 정도경영의 실천, 혁신활동의 생활화 등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장에만 치우치는 기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조활동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러한 경영철학이 직원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이번 무재해 3배수 달성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동료의 안전까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안전관리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노력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목표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우리 동우화인켴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및 발판 체험 등의 테마를 지정한 후 매년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협착점에 대한 주의, 올바른 사다리 사용방법 등 9가지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맞도록 자체 개발·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성을 모두 높여나가고 있다.

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교육방식은 '안전의식 향상' 차원에서 예상보다 큰 효과를 가져왔다. 안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도와 참여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것이 무재해 3배수 현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안전관리활동은 ERP로 철저히 관리

이곳은 시스템 적인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동안 2004년도에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그리고 올해에는 KOSHA 18001(인증확정, 인증서 발부 중)까지 취득하여 시스템적인 기반을 완벽히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ERP를 구축·운영하면서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전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작업 허가, 위험성평가결과, 가동전 점검, 매월 안전점검결과 등의 안전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환경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이곳은 안전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표'도 개발·운영해왔다. 안전순찰, 안전제안, 위험예지훈련 등 총 10가지의 기본 안전 활동을 바탕으로 지표를 마련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지역내의 불안전행동이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토록 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서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가 사업장에 정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의 목표는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

이제 이곳은 포승공단의 대표적인 안전현장이 됐으며, 이와 맞물려 기업의 위상도 그만큼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안전에 대한 발전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 아직까지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가능한 모든 투자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재해 20~30배수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현장이 되는 것이 이곳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안전현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NO.1이 되겠다는 이곳의 목표도 분명 불가능하지않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

